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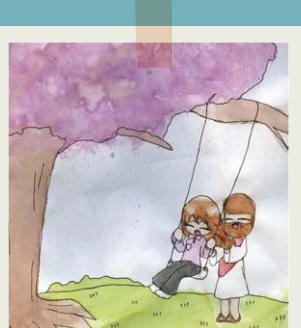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5 2024
통권 603호

교회표어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이 작품은 소년부 김나진 어린이가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도와주시는 든든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며, 일상 속에서 깊은 평안을 선사합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5월
목회력

- | | |
|-----------|-------------------------------|
| 04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
| 05 주일 |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
| 10 금 | •연합권찰모임 |
| 13 월~15 수 |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 18 토 | •영락가족 운동회 |
| 26 주일 | •청년선교비전, 사회봉사주일 |
| 12 주일 |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
| 17 금 | •심방준비회 |
| 19 주일 | •성령강림주일, 교육주일 특별예배 |

만남

2024년 5월호
통권 603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곳, 가정 김운성

특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06 주일학교서 얻는 ‘n가지 자산’ 방덕종

08 사랑 가득한 가정, 행복의 출발점 두상달

다음세대 / 청년광장

11 ‘하나님 쪽’ 새벽 특송한 영아부 쪽! 영아부

12 아동부 통합주말학교 아동부, 김혜진, 이남우

16 선교에 ‘열심’ 영락 청년부 청년부

18 3040 일어나다! 첫발 뗀 ‘영락의 허리’ 전재량

20 영락의 3040이여! 다함께 올라가자!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22 다음세대의 꿈이 꿈틀꿈틀 영락꿈터!

24 영락교회 80년사 편찬과 디지털역사관 설립 박명수

영락칼럼

26 혼돈의 시대, 크리스천의 분별 강승훈

29 듣기를 생각하다 김태영

땅끝까지 이르러

32 담장 너머 간한 영혼들 ‘복음의 새길’로 인도 원춘식

34 내 대답은 언제나 “Yes, 주평주승” 송광옥

만남 그리고 사람들

37 요시다 목사의 42년 사죄와 화해 이향주

40 사랑부, 그리고 참 고마운 이름들… 이민옥

42 생명 품은 알처럼…날마다 부활 인 미

44 ‘천국의 젓가락’ 더 일찍 배울 걸… 김용숙

영락의 울타리

46 회의에서 신뢰로! 제64회 산상기도회

49 복음통일은 기필코 이뤄지리라 정하민

52 아프면 아스피린? 알고 먹어야 ‘약’ 김영표

54 ‘너는 내 아들’ 상영 이끄신 하나님 김경희

교회소식

56 2024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외

60 가족은 한 핏줄, 사랑의 공동체 정재원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곳, 가정

김 운 성 위임목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5)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언급됩니다. 슬로브핫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다섯 딸을 남기고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섯 딸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비록 여성이지만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요청이었지만, 여성의 권익이 잘 보장되지 않던 당시에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성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남성과 차별 없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여성도 소외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기업이 지파별, 가문별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

았고, 또 종족별, 가문별로 받았습니다. 종족과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양육되고 유지되는 현장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아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예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받은 복을 자녀가 함께 누렸습니다. 부모로 인해 자녀가 복을 누리는 예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은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과 흉년을 피하기 용이한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

가정은 하나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공동체 가족과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서 행복하기를



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은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복을 끼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가정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예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도 열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그 복을 누리고, 그 자녀도 또 그 다음 자녀를 축복하면서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생활의 백미입니다.

며칠 전 밤 열 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든 생각은 ‘낮에 길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저녁 이후에 돌아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잘 곳으로 갔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잘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숙박업소로 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숙박업소와 가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룻밤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숙박업소는 문자 그대로 숙박만 하는 곳인 반면, 가정은 사랑으로 영호까지 어루만지는 곳입니다. 호텔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피로가 쌓이지만, 가정은 누추해도 안락한 쉼이 있습니다.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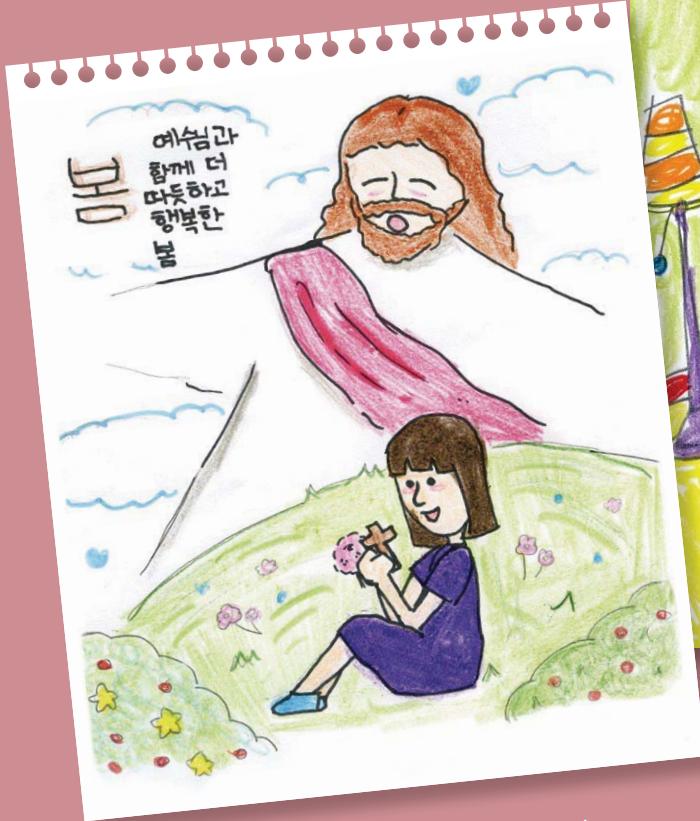
1인 세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체온을 느낄 수 없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데 마음을 쏟았으면 합니다. 거기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족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조희선 시인의 <선물>이란 시가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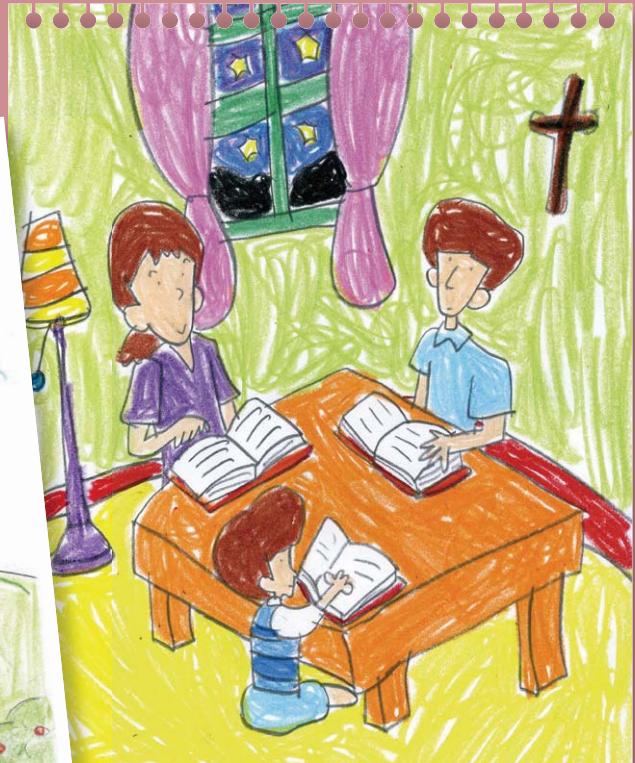
<지나고 보니 / 가장 귀한 선물은 / 당신이 내게 준 일상
하루의 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 이야기할 수 있었던 /
그 자그마한 나눔이었습니다.

나는 예전 목걸이나 / 시계 파워의 정표가 /
가장 귀한 것인 줄 /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제 더 이상 일상을 / 함께 나눌 수 없다는 /
이것이 바로 절연인 것을
이것이 바로 숨통이 끊어지는 / 아픔의 실체인 것을
이것이 바로 내가 쉬이 잠 못 드는 / 불면의 이유인 것을
지나고 나서야 / 당신이 내게 준 선물 /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길 소원합니다. **만날**



김주은_소년2부



박경민_장애인 청년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교회학교 프로그램 안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새가족 등록을 미처 못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영·유아가정, 학업 등의 이유로 교회학교 결석 자녀를 둔 부모님, 장년예배만 드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5월 프로그램을 기회 삼아 자녀들을 해당 교육부서로 안내해주세요.

문의 : 교육부(02-2280-0131)

주일학교서 얻는 'n가지 자산'

유아기 유독 자주 하게 되는 영성 경험

어린 시절 운동장 한편에서 개미 무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관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먹이를 여러 마리가 함께 힘을 모아 움직여 가는 모습, 일터와 개미집 입구 사이로 마치 누군가의 지휘에 맞춰 움직이듯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참 지켜보다 보면 어느덧 내가 개미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문득 지금 내가 개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큰 존재가 저 하늘 위에서 개미처럼 작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초월 경험’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영성 경험으로 구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 울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초월 경험’은 유독 유아기 시절에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덕종 목사
교육전담

영성 관여 '감정의 뇌' 어릴적 훈련할수록 활성화

어린이들의 활발한 영적 경험은 뇌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련해온 티베트 승려들과 프란체스코 수녀들이 명상 기도할 때의 뇌 활동을 확인해 보았더니, 명상이 깊어지고 영적 경험이 강해질수록 뇌의 특정 부분이 더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뇌의 특정 활동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과 관계되는 뇌의 특정 부분은 ‘감정의 뇌’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뇌의 각 부분이 갖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이 영역을 다른 때 보다 유아기 시절에 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발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유독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진한 영적 경험이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유아기 신앙 교육은 과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얼마나 많은 신앙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일생 경험하게 될 영적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긍정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기 삶 달라져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는 어떨까요? 아동기 시절의 신앙생활 또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길러낸 많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청소년

기를 보낼 때가 가장 힘든 양육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급격한 변화를 맞는 이 사춘기는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적지 않은 청소년이 사춘기를 지나며 일탈하게 되거나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이 시기를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희망하지요.

자녀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하는 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10년간 40만 명의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이들이 가진 자질과 아동기 시절 동안 경험하는 여러 긍정적인 경험의 정도에 따라 이들의 청소년기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로 성장하기 위한 ‘40가지 발달자산’을 제시하는데, 일탈이나 방황 없이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아동기를 지나며 이 발달자산의 30가지 이상되는 항목을 충족했습니다.

예배, 리더십, 정직…교회학교 다니면 저절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40가지 발달자산’의 내용입니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발달자산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 프로그램이나 예배에 참석하기’와 같은 아동기의 신앙 활동 자체가 이 항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20가지 내적발달자산’의 경우는 정직, 성실, 절제, 삶의 목적 인식, 긍정적인 미래 전망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왕성한 신앙 경험을 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이 발달자산들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아동기의 왕성한 신앙 활동 경험은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월 한 달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캠페인을 합니다. 아직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회 삼아 자녀들을 해당 교육부서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자기 또래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되는 많은 신앙 경험들은 우리 자녀들을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돋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만날**



사랑 가득한 가정, 행복의 출발점



두상달 장로와 김영숙 권사는 국내1호 부부강사이다.

부부·부모·자녀 3겹줄 정(情)식은 부박한 세상

신부처럼 아름다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랑이 빠진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 가정은 부부와 부모, 자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영어로 가족, 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은 없다. 안타깝게도 3겹줄처럼 끈끈했던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가정이 해체되는 부박한 세상이 되고 있다. 삶의 휴식처이자 힘의 충전소인 가정이 있기에 힘들고 고달파도 일할 맛 살맛이 나는 것이다. 가정은 패러데이 새장¹과 같은 피난처이기도 하다. 기업이 경영이라면 가정도 경영이다. 한시적 일터인 직장이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평생 일터인 가정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며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누구나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는 있다. 행복의 출발점인 가정은 일차 사역지다. 가정의 문화가 달라졌다. 지금은 일터와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균형에 맞게 잡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¹ 패러데이 새장 효과의 원리는 새장은 번개를 맞아도 전류가 새장 철재를 타고 바깥으로 흘러가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동, 번개가 쳐도 자동차 안이나 항공기 내에 탑승한 사람은 안전한 현상을 말합니다. (출처 : 패러데이 새장효과란? 경남도립거창대학 항공정비학과)

아니므로 화단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꾸준히 가꾸고 배워야 한다. 무면허 아내와 남편, 무면허 부모로 사는 것이 문제다. 준비 없는 결혼이나 은퇴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서로 다르다? 그건 엄청난 축복

부부를 영원한 이방인(eternal stranger)이라고도 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맞는 게 없어”, “우리 부부 맞아?” 내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식성도 다르며 냉난방 조절 문제로 부딪히기도 한다. 올빼미형, 종달새형 잠자는 습관까지도 다르다. 결혼 전 각자 살아온 단행본이 있는데, 결혼 후 이것을 개정판으로 바꾸려 하니 문제였다. 부부는 수정판이 아니라 합본으로 사는 것이다.

부부가 다른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다른 것은 차이이고 개성이고 다양성이다. 달라야 다양성을 누릴 수 있고 우성의 자녀가 태어난다.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하니 문제다.

특별히 압축경제 발전 시기에는 목표지향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살아왔다. 정서적으로 지금과 전혀 다르게 살아왔다. 그 세대 남편들아, 기억하라. 세상이 변했노라. 오늘의 경제 부흥은 아내들의 고독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민족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떠고 살았던 세대여! 아내를 향해 외쳐보자.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라고.

“여보 사랑해” 나부터 먼저 말해보자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종합예술이다.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등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갈등을 통해 하나됨(oneness)으로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파경(separation)으로 가는 가정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이 비결이다. 배우자가 훌륭한 사람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바뀌니 가족이 바뀌었다. 내가 변화된 만큼 가정이 변하고 달라졌다. 정감 있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아내는 거창한 데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사소한 일, 자상한 말 한마디에 감동한다.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감격하고 때로 눈물 흘리기도 한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아내들, 이 땅에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 싫어할 여인은 없다.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 세상 최고 미인은 내 아내다. 결혼할 때 나는 지구상 35억 여인들을 포기했다. 내

아내 외 다른 여인들은 그립의 떡일 뿐이다. 남자들은 시각이 빌달했고 여자들은 청각이 빌달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드에 무너지고 여자는 무드에 허물어진다. 남편들아, 연인으로 다가가라. 당의정 같은 언어에 무너지는 게 여자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청각을 자극하는 속삭임으로 다가가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는 소리로 “여보 사랑해, 힘들지? 고마워, 당신 예뻐, 사랑해!” 속삭이자. 메뉴가 달라지고 행복이 놓익어 갈 것이다.

부모 공경,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가정의 달이다. 나는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랐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약관의 나이에 잃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 눈물겹도록 그리운 어머니, 보고 싶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찡하고 목이 메어온다. 오늘도 어머니의 정이 한없이 그립고 그립다.

보고 싶은 어머니, 사랑의 화신 같은 어머니! 그 사랑이 그리워 목메어 불러본다. “어머니, 어머니!” 꿈 속이나 그려보는 어머니. 만일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건 축복이다. 오늘 바로 전화를 걸자.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도 보내드리자. 또, 손도 잡아드리자.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자식의 이 말 한마디에 어미의 가슴은 미어질 것이다. 그리고 찡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이 그곳에 있다. “아버지,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만날**



두상달 장로

반포교회
(사)가정문화원 이사장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



'하나님 쌍' // 새벽 특송한 영아부 쌍!

영아부(부장 하석렬 안수집사)는 지난 4월 6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에서 특송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자, 영아부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자는 부장님의 제안으로 영아부 특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 두 달 맹연습 특별새벽기도 무대 올라

영아부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3곡('정말요 예수님', '하나님 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선정해 두 달간 부모님들과 선생님 모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특송을 준비하면서 걱정되었던 부분은 '새벽기도회에 과연 몇 가정이나 참석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예배 시작은 6시 30분이고, 무대 대형이라도 한 번 맞춰보려면 6시까지는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 어린아이들을 챙겨 함께 나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 근처에 사는 가정보다 용인, 송도, 의정부, 김포 등 교회에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아부는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더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변수가 많은 부서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내디뎠지만 시간 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쪽에 있던 걱정도 커졌습니다.

새벽 6시 몇 가정이나 참여할까 괜한 걱정

그러나 놀랍게도 특별새벽기도회에 영아부 아이들 35명, 아

이들을 제외한 부모님과 형제·자매 75명, 교역자를 포함한 교사 43명으로 총 153명이 참석했습니다. 본당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귀한 찬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울동을 완벽하게 해내고, 찬양을 잘 부른 것보다 더 큰 감동은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을 부모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전날 아이의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예배를 위해 김포에서부터 달려온 가정, 자녀를 깨우고 깨우다 결국 일어나지 않아 자녀의 애착 인형과 함께 찬양한 가정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각 가정의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 점프하듯 믿음 점프하세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부모님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바라보는 이에게는 다음세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

아동부 통합주말학교 “The Story”

아동부(초등1~6학년)에서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부 통합주말학교(부장 임영환 장로)를 시행했습니다. 어린이 50명, 학부모 46명, 교사 30명이 참여한 이번 주말학교에서 유년부는 「센싱 더 스토리」, 초등·소년부는 「바이블 인 더 스토리」, 아동부 학부모는 「부모세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센싱 더 스토리」와 「바이블 인 더 스토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아동부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단



번에 제자 삼기보다 12명의 선발된 제자와 함께 제자를 길러내신 것처럼 소그룹 형식으로 교육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함께 먹고, 나누고,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신앙기초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통합 주말학교 'The Story' 소개

센싱 더 스토리 감각적인 교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어린이의 영성 형성을 돋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블 인 더 스토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어린이 소그룹 양육프로그램입니다.

부모세움학교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양육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부모세움학교는 찬양, 강의, 질의응답, 소그룹 나눔, 기도회로 구성됩니다.

야외프로그램(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2024년 1학기 통합주말학교에 참여하여 '신약 이야기'를 배운 어린이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분들이 잠들어 계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탐방하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양화진에는 자기의 모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한민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복음의 열매로 맺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위 사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센싱 더 스토리」 수업에 관한 소개를 듣고 아이가 성경책을 활자로만이 아닌,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직접 재현해 보고 감각으로 느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순절, 부활절 주간에 진행되었던 센싱 더 스토리에서 첫째 아이는 예수님 옆에서 나귀를 빌리는 종도 되어보고, 빌려주는 나귀 주인도 되어보며 '완전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들과 말씀 안에 들어가 재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듯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진행된 「부모세움학교」 강의는 저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영채 목사님의 간증과 사역을 듣는 첫 강의 시간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9살 첫째 아이와 7살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발달장애(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자분들을 섬기시는 목

김혜진 집사
강동·송파교구
유년부 이주찬 엄마



사님의 사역과 척추 장애가 있는 목사님의 삶을 들으며, 장애 인의 가족으로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모습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삶의 선택지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느린 아이의 상황에 맞춰 환경을 변화시키며 더 깊고 장기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생각과 계획이 많아 더더욱 근심이 커던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받은 말씀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7)"였습니다.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기도보다 우선하여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고, 재단하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어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이승연 목사님 강의에서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과거부터 기록하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간표로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딸아, 수고했다" 안아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와 말씀, 실천을 부지런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김수연 교수님 강의로,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울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기독교 불모지인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삶을 내드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을 보고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손쉽게 읽는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와 번역되고 널리 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의 수고로움과 기도가 있었을까. 나는 너무 값싸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이 자리 잡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의 모습 안에 태초부터 지으셨으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하지만 쉽사리 잊고 사는 진리입니다. 방법은 가장 뻔하지만, 가장 하기 힘든 '사랑'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손이 많이 가는 느린 둘째를 양육하며, 첫째는 알아

서 잘해주기를,
스스로 성숙한 모
습으로 자라주기
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9살
첫째 아이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종
종 이 아이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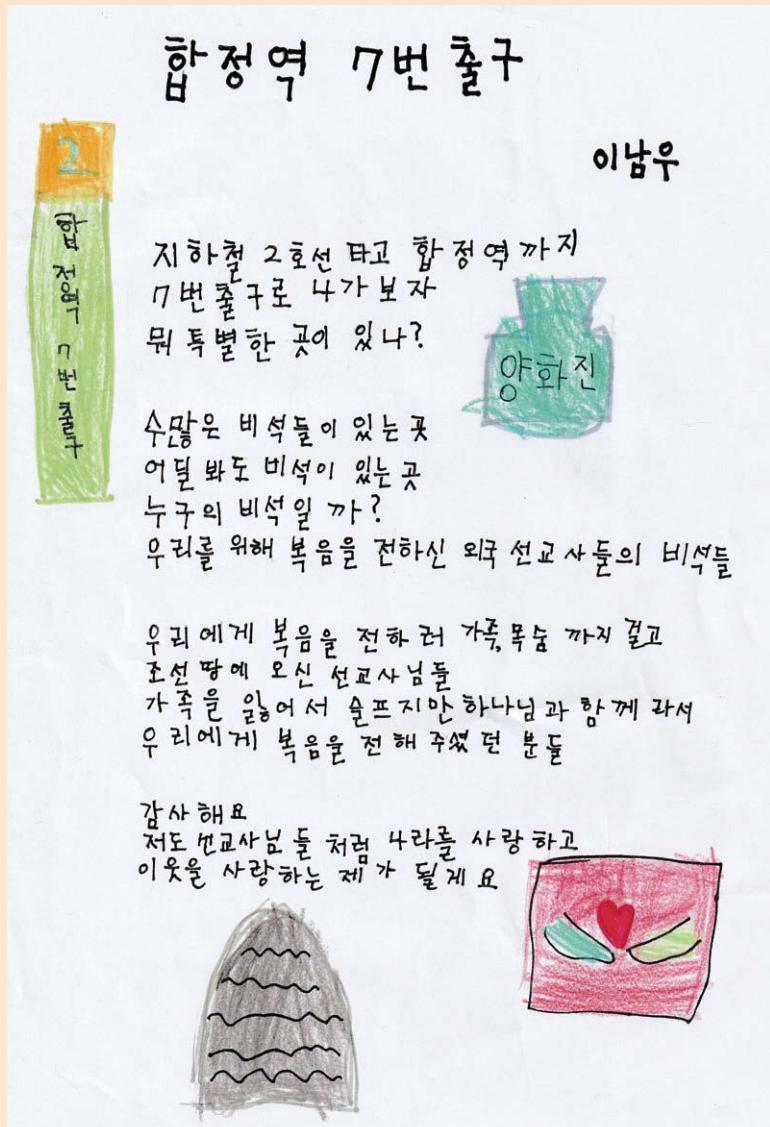
숙한 모습을 볼
때 나의 이성적인 기준과 날카로운 말들로 훈육하려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
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4주가 지난 지금, 아직은 부족하여 같고 낚일 부분이 많
은 모난 돌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의 한 조각이나
마 날마다 성화(聖化) 되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
다. 나의 지혜와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고, 매일 마
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
는 삶을 살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아이를 향
한 제 시선의 온도가 아주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다고 느끼
게 되었습니다(저만 느끼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양질의 강의와 나눔의 시간, 기도회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영락교회의 많은
학부모님이 부모세움학교를 통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소
망합니다. 또한 내 아이뿐 아니라 내 아이 옆에 선 아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
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지혜를 배우며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남**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와서…



이남우 어린이 _초등부

선교에 '열심' 영락 청년부

청년부는 국내하기선교봉사, 해외선교봉사, 해외선교사 후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하기선교봉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날 북녘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날 날을 꿈꾸며 시작한 하기선교봉사, 1976년부터 매년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와 함께 청년부에서는 국내하기선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누적 45차, 1만 6천여 명의 봉사 단원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복음 전파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주축이 되는 청년부팀뿐만 아니라 의료선교팀, 하모니카 찬양의 올드보이즈팀, 화려한 부채춤의 비파와 수금팀, 이·미용 권사님들, 수송 담당의 청년선교회, 성경학교를 여는 부부선교회, 집중전도팀, 장수사진팀, 연장연마팀, 식사를 담당해주시는 만나권사님들 까지, 참여하는 모든 봉사 단원이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46차 국내하기선교봉사에는 350명 이상의 봉사 단원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하나의 잊어버린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해외선교봉사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1991년부터 1년에 많게는 5회에 걸쳐 해외선교봉사 또는 비전트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되었지만, 해외지역 방문이 다시 시작되기를 꿈꾸며 올해 9월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사 후원

청년부는 해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 태권도 사역, 문화 선교 등 다양한 복음 전파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나먼 타지 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 현재 7개국(네팔, 태국, 러시아, 몽골, 튜르키예, 중앙아시아 K국, D국) 11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4 영락청년선교비전



이러한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영락 청년부가 국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알리고 예배, 기도, 재정으로 온 교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24 선교비전'을 진행합니다.(사진은 지난해 선교비전 및 국내하기선교봉사 모습)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비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제79대 회장단

날짜 : 2024년 5월 26일(주일)

장소 : 베다니광장 및 만남카페

1. 일일카페

일일카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성 가득 음료와 간식을 판매합니다. 더불어 해외선교 사님들의 선교 현장과 기도 제목이 담긴 포토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해 주세요!

* 일일카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해외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2. 하기선교봉사 사진전

지난해 진행했던 하기선교봉사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합니다. 어떤 사역들을 진행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올해도 영락의 청년들이 지역 교회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올 것을 꿈꿔봅니다.

3. 본당 찬양예배 특송

5월 26일 주일 본당 찬양예배 시 청년들이 특송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훌로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겸손히 찬양하고자 합니다.

3040 일어나다! 첫발 뗀 '영락의 허리'



지난달 3040 세대 첫 연합예배 드려

지난 4월 14일(주일), 영락교회 3040 세대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영락의 3040 세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예배를 시작으로 영락 공동체 안에 '3040 세대가 일어난다!', '3040 세대만 아니라 전세대가 화합하고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가슴 벅찬 기쁜 소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락교회는 3040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청년부를 졸업한 3040 세대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구로 넘어가자니 나 이 차이, 직장, 가사,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교구나 구역에 속하고 싶어도 속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끝까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간 일부 3040 세대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3040 세대들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일을 큰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가족사랑, 4남·여선교회…허리 완성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의 관심과 현신 속에 작년부터 이른 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이제는 청년부를 졸업하면 결혼 여부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청년선교회, 신혼부부공동체, 가족사랑공동체(부부선교회)에서 양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4남선교회로 연결되어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야 영락교회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허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허리의 출범을 알리는 예배가 4월 14일 올려드린 '3040 연합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첫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이가

첫걸음마를 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걸음이 단지 한 걸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음질이 되고, 이 달음질이 또 다시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날아가는 세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발걸음이 많은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회 떠난 3040, 58%가 돌아오고 싶어해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3040 세대의 교회 이탈자는 3명 중 1명으로 매우 높은 이탈률을 보였습니다. 이 세대는 직장과 주거 문제, 가사와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본인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탈자 중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떤 '계기'가 없어 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3040 세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특히 이 '계기'의 포인트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3040을 위한 장소', '3040을 위한 시간(예배나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인력(탁아 역할과 식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소 문제는 3040뿐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정 지원도 효율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40 세대 우리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3040 세대가 먼저 움직이고 연합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원과 사람들로 '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과

거 2대 혹은 3대 이상 걸친 신앙을 통해 영락 성도의 자녀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수많은 3040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땅의 3040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의 3040 세대들은 우리 영락교회가 다음세대 예배가 넘쳐나며,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3040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 곳곳에 개선해야 할 전통과 구조가 있다면 함께 협력하여 치유해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세대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칙이나 방식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양보하며, 서로 이해하여 선을 이루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성만이 있길 원합니다. 3040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예배 때 "젊은이들이 귀하다" 하시며 본인의 자리를 수십 번 양보하여 뒷자리로 물러나 주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자리가 모자란 상황에서 앞에 앉아계셨던 권사님들께서 몇 번이 고 일어나 뒤로 또 뒤로 이동해주 시면서 청년들을 격려해준 모습에 청년들은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이를 모를 권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다음 발걸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전재량 목사
3040세대
청년부

영락의 3040이여! 다함께 올라가자!

영락의 3040 세대들이 한곳에 모였다. 지난 4월 14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 3040 연합예배는 영락 공동체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 자체들이 한데 모여 여호와의 날개로 도약하기를 선포한 영광과 기쁨의 잔치였다. 3040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열매로 맺어진 이번 예배를 통해 3040 성도들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연합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호에서는 3040 연합예배 준비에 참여한 3040 공동체 ‘섬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에 담았다.



신혼부부공동체 지기 신승원 집사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영혼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끌려 나와 다시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청년부 안에 처음 만들어진 신혼부부공동체는 결혼한 지 7년 이하 혹은 영아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신혼의 때에 나눌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뜻뜻한 신혼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은혜와 경험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선교회 회장 정상겸 집사 예배를 통한 시작이 아니면 3040 세대의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천천히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한 발씩 내디뎠던 것이 기쁨의 연합예배로 작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연합예배 한 번으로 3040 세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고 대화하는 사이가 된다면 서로 간의 오해가 없어지고, 모든 3040 부서가 연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부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부 청년회장 전홍진 청년부에서 4남선교회, 4여전도회까지 3040에 속한 영락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040 연합예배는 흩어져 있던 영락의 젊은 세대를 한데 모으고 아우르는 날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영락의 3040이다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선교회장 권세은 집사 3040 연합예배는 함께 걷는 첫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시작으로 더 많은 영락의 3040 세대가 힘차게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선교회는 지쳐있는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동하는 부서가 되고자 합니다. 연합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남선교회 회장 이창곤 집사 3040 연합예배를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은 자치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회원들의 생각이 다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3040 세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작은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 중 외친 구호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4여전도회 회장 한은영 집사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결혼, 육아 등 삶의 여러 어려운 과제 안에서 지쳐갈 때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영락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4여전도회 표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세대의 꿈이 꿈틀꿈틀 자라나는 영락꿈터!

다음세대를 위한 꿈의 공간이 문을 연다.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확정사역으로 진행 중이 었던 50주년기념관 7~8층 키즈플레이존 공사가 2개월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 4일(토) 준공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새롭게 문을 연 키즈플레이존의 이름은 영락꿈터(약칭 '영꿈')!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는 성도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전교인 을 대상으로 공간 명칭 공모전을 실시했고, 심사 결과 '영꿈'이 최종 선정됐다(제안자 : 8교구 김지예 집사).

'영꿈'의 구성은 크게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세대의 눈높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설 배치가 눈에 띈다. 초등생과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 조성된 A 구역에는 7층 중앙의 공간과 8층까지 뚫린 높은 층고를 활용해 <플레이 그라운드>와 <챌린지 코스>가 들어섰다. <플레이 그라운드>는 실내 축구 및 농구를 하거나 워십댄스를 연습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영유아를 위해 조성된 B 구역은 <트램펄린>과 <쿠션놀이터>, <볼풀 슬라이드> 등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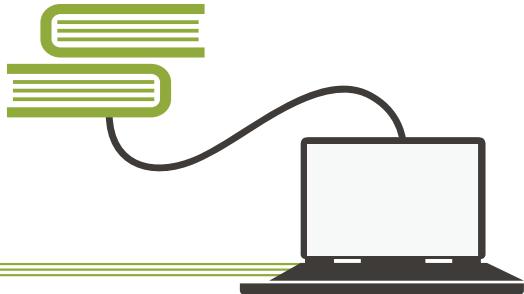


* 성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조감도 이미지를 게재합니다.

‘영꿈’ 입장 시에는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부모나 보호자를 배려한 공간들도 눈에 띈다. 특히 3040 세대 젊은 부부들을 위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7층 활동실 네 곳을 터서 휴게공간을 조성했고,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영꿈’의 운영시간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중(화~토)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특히 평일에는 영락 성도의 자녀뿐 아니라 영락유치원, 영락어린이집 원생들의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영꿈’의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도 쾌적한 운영을 위해 장년 성도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주일에는 교육부서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관리와 운영을 도울 예정이며, 주중에는 은퇴권사회(회장 김영옥 은퇴권사)에서 도울 예정이다. 특히 은퇴권사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손주를 돌보는 마음으로 섬세하게 운영을 도울 것을 다짐했다. 자원봉사부(부장 강동호 장로)에서는 매주 토요일 시설 전체에 대한 청소 봉사를 펼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돋기로 했다. 교육부는 ‘영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한 놀이시설, 안전시설 관리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놀이 기구마다 세부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놀이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발생 소음을 막기 위해 각 시설 외부에는 투명한 차단막을 설치했다. **만날**

영락교회 80년사 편찬과 디지털역사관 설립



2025년이면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한다. 해방 직후 창립된 영락교회는 지난 8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한 영락교회의 역사를 바로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하며, 동시에 디지털역사관을 제작하여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필자에게 이 일을 부탁했다. 필자는 서울신대 장금현 교수와 함께 <영락교회 80년사> 집필과 디지털역사관 작업을 위촉받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영락교회 80년의 역사와 그 의의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정리하는 일이다. 한국 개신교는 초기부터 장로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

며, 그중에서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개신교가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는 이런 흐름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락교회 80년사>를 통해서 이 같은 한국 현대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역사신학

사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영락교회는 월남한 피난민이 세운 신앙공동체이다.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평북 신의주에서 신앙 생활하던 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월남하여 서울에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다. 이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중심만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었다. 영락교회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다.

영락교회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에 중요하게 기여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어떤 국가체제를 세울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좌우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직 목사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굳게 확신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절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는 여기에 단호하게 맞섰다.

영락교회는 60년대와 70년대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밥 피어스나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전도와 구호에

힘썼고, 이것은 1960~70년대 민족복음화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별히 1973년 한경직 목사가 주도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는 많은 대형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 강남으로 이전했고, 강남에는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영락교회는 처음 시작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금의 장소를 지키고 있다. 80년대 이후 등장한 대형교회들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부작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영락교회는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의 흔적들이 영락교회에 그대로 배어 있다. 그 부분을 <영락교회 80년사>를 편찬하면서 잘 기술하고자 한다.

영락교회 디지털역사관의 방향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하나님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룩하신 역사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사관 제작을 계획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교회가 다음세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새로워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역사관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영락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영락교회에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 대안으로 먼저 디지털역사관을 만들고, 기회가 되면 이것을 역

사박물관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역사관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영락교회를 안내하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비전을 영락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도 공유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 교회 역사관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만든 역사관을 그대로 디지털화한 것이지만 영락교회 디지털역사관은 오프라인에 없는 가상의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회 역사관들과는 다르다. 누구나 쉽게 영락교회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시대마다 성도들이 걸어 왔던 거룩한 발자취를 공유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디지털역사관은 목회자별, 인물별, 사건별, 시기별, 주제별(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등의 분류에 따른 교회 역사를 쉽게 접근하도록 도울 것이다. 교회에서 공개 가능한 자료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단순한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 인물 관련 정보를 수록하여 상호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정리하여 알리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셨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해서 후대에 전달된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정리하고 알리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락교회 80년사>와 디지털역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시하고 영락교회의 80년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만남**

혼돈의 시대, 크리스천의 분별



다들 우리가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를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돌리면 작금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하나의 전제(前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를 보는 눈이 바르고 정확하다는 확신입니다. 정말 이들은 세상과 인생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가볍게 듣고 빨리 보며 쉽게 말하는 사람들

편견 없이 듣고 보면서 기실(其實)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대상과 상황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것에 관련하여 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분별(分別)한다고 말합니다. 분별할 수 있으면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분명해집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안정과 용기를 가지고 초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 때문에 제대로 곱삭은 식품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듯이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것 같은 분별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볍게 듣고 짧게 보며, 빨리 느끼고 쉽게 말하는 얕은 삶의 분위기와 방식에 쉽게 물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신앙의 자리에서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분별, 나를 살피며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여정

성경은 우리가 사는 불확실한 시대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 관련된 자아(自我)가 가지는 모든 혼란을 대하는 태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분별(로마서 12:2b, 고린도전서 12:10, 에베소서 1:17~18, 히브리서 5:14)이라는 것입니다. 분별(discernment)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심판(judgement)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성경의 다양한 용례와 신학적인 정리가 다채롭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잘 듣고 배우려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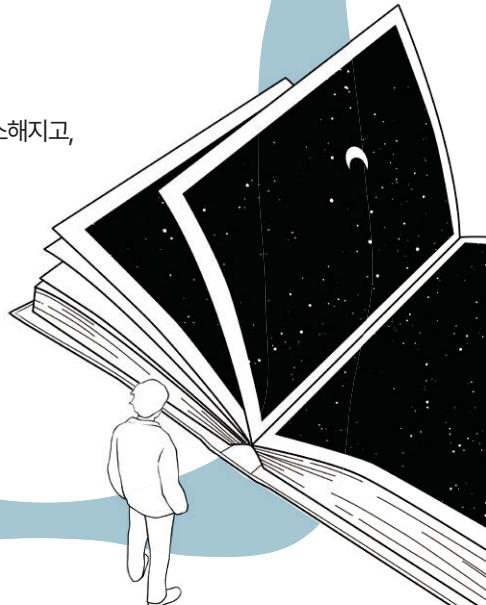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문제없는 인생보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분별을 언뜻 보면 좋은 결과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점차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숙고하며 배워갈수록 나를 살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승훈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우리 시대의 역설(The Paradox of our Age)

건물은 더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 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저작자가 다양해서 유명한 글,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간절히 얻고 싶은 것과 함께 잊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작가의 분별력을 통해 선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 미국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을 통해 화학 산업(주로 살충제인 DDT를 중심으로)이 생태환경과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먹이사슬에 관련한 면밀한 조사와 논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아름다운 자연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던 미국 내륙 어느 마을의 일상(日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죽어가는 생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레이첼 카슨을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치닫는 시대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인류가 걸어갈 옳은 길임을 알려준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말합니다.

“스승님, 바람에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나무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대답하길)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나뭇가지도 아니며, 네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 영화 ‘달콤한 인생’ 중에서

일상에서 말씀 속에 기도의 깊은 뿌리 내리길

흔돈과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를 따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큰 기적보다 일상의 과정을 사랑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오월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뿜듯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고린도후서 2:15)가 피어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확신하고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로마서 12:2(새번역)

만날



듣기를 생각하다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삶의 산등성이와 비탈에서 울려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바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잘 들어야’ 한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조건을 ‘호모 엠파티쿠스(공감하는 인간)’라고 규정하는데, ‘들어주기’보다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듣기는 청각의 영역이 아니라 관심의 영역이다. 듣기를 통해 성도님들이 조용한 성숙에 다가가길 기도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는가?

수면이 잔잔해야 사물이 깨끗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면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 잘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징기스칸은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라고도 하지 않았던가. 잘 들을 때 모든 것이 스승이 되고, 내면의 내가 보이며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듣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듣는 것이 내가 되고 듣는 대로 살게 되니, 즉 소리는 생명이고 호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리는 존재를 의식하고 의미있게 한다. 눈을 뜨면 사물이 보이지만, 귀를 열면 내면의 내가 보인다. 그러니 혀를 침묵시키고 사색의 중량을 올려보자. 자기 내면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귀는 영혼의 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지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미가 7:7)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동시에 듣고 계신 것이다. 고요히 귀를 기울이면 심장이 말을 건네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지성의 가장 고귀한 기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김태영 장로
고양·파주교구
홍보출판부부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복음은 귀를 통과해서 영원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청각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다윗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순종은 ‘매우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했다. 묵상은 내면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이다. 성부·성자·성령과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들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유대랍비 힐렐은 “현명한 사람은 혀가 짧고 귀는 길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그만큼 잘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영적 난청을 항상 경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겠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소명은 ‘목소리’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명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간이 되라는 초청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멜로디가 더 아름답다

넘쳐나는 시각적 자극에 지친 현대인에게는 소리의 울림을 즐길 줄 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어느새 불어오는 봄 바람을 맞으려고 창문 열고 눈 감으니 음악감상실이 따로 없다. 음악은 오감 중 가장 빠르게 기운을 바꾸어 주며 활력을 주어 균형과 안정감을 찾게 한다. 음악은 내면으로 스며들어 혈관

과 뺃속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정신의 세계로 인도하며, 사유의 근육을 키워나간다. 상상 너머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시각이 아닌 청각이다.

귀에 들리는 멜로디는 아름답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멜로디는 더욱 아름답다.

듣는 것이 아프다

아직 소리가 많이 깨어나지 않은 잠잠한 새벽에 산책하니 세상이 조용하게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린다. 잠이 덜 깐 하늘 아래 모든 소리가 감정으로 변화된다. 봄철 새소리는 기쁨을 주고, 가을철 벌레소리는 처량하여 슬픔을 준다.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는 소리, 갈라졌던 마음들이 메워지는 소리, 헤어졌던 모든 것들이 만나는 것은 반가운 소리다. 해가 낮게 걸린 시간에 눈 내리는 소리와 차 끓는 소리는 고아하고 소박한 소리다. 세찬 바람과 고목나무에 깃든 비 소리, 제시간에 떠나는 기차 소리는 쓸쓸한 소리다. 대립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편 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무너지는 소리다. 주름진 할머니 손 바느질 소리, 가난한 늙은 엄마 밥하는 소리, 아이들 책 읽는 소리 가득한 방 안 풍경이 아득한 소리다. 아기 밥넘어가는 소리, 찬양 소리, 황금빛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다. 장애인의 불편한 소리, 요양원에 누워 계신 늙은 엄마의 은빛 미소 소리, 환자의 비명 소리는 훌쩍이는 서글픈 소리다. 나무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와 식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모든 생명체들의 심장 소리, 봄에

땅이 부푸는 소리, 고양이 발걸음 소리, 자연의 기적들은 생명의 소리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 참 목자의 눈물, 세미함으로 울부짖는 성령님의 기도는 비명 소리다. 5월 봄바람이 뺨에 스치듯 따스한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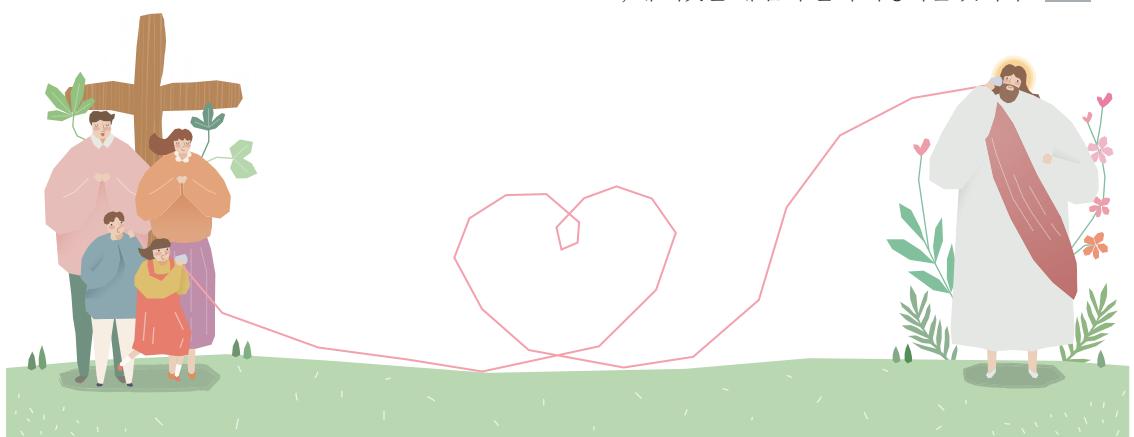
소리 하나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음속 깊이 밀려 들어온다. 귀가 말한다. 기쁜 소리만 듣지 말고 이웃의 슬픈 표정과 가족의 신음 소리를 더 많이 들으라고. 모든 사라지는 것들의 삶의 고단한 소리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리라 다짐해 본다.

귀는 말하는 창문이다

새날은 이제껏 보이지 않던 이웃의 신음이 들리는 날이다. 진짜 관심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내 북소리를 멈추어야 새벽 종소리를 들을 수 있듯, 듣기 위해서는 남에게 다가가야 한다. 나는 타인과 마주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경청은 귀가 말하는 언어이다. 들음으로써 말하는 경청

의 신비를 보라. 이는 소통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잘 듣는 일은 글을 잘 읽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맹은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소리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따라서 대화할 때는 “많이 듣는 것이 곧 많이 말하는 것이다”라는 비밀을 꼭 기억해야 한다. 눈은 선택적으로 감을 수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음성, 즉 목소리는 ‘소리 나는 명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타인의 심장을 켜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잘 듣는 사람’이다.

입은 열려 있으나 귀는 닫혀버린 독백의 시대, 영적 보청기가 필요한 오만과 불통의 때라는 날이 선고 발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깊게 듣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는 간절함의 발로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힘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다. 잘 듣는 것은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만날**



담장 너머 갇힌 영혼들 '복음의 새길'로 인도



원춘식 은퇴권사
종로·성북교구
새길회 회장

우리 영락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여러 선교 소단체 모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51년째 교도소를 방문하며 재소자를 위한 교정 사역을 펼치고 있는 새길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3년 한경직 목사님 작명해주신 '새길회'

지난 1973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무기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새길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새길회'란 이름은 한경직 목사님이 직접 지어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51년 전 시작된 새길회의 교정 사역을 통해 많은 재소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새길회는 많은 믿음의 선배와 함께 매월 마지막 화요일 1시 30분 벤엘에 모여 찬양과 예배, 통성기도 등을 하며 모든 회원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매월 한 차례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청주와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형제들을 찾아가 70분 동안 예배와 상담, 기도로 위로한 후 정성스레 준비해 간 음식들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옵니다. 70분의 짧은 만남을 서로 아쉬워하며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아올

때는 형제들의 믿음 성장을 기뻐하며 은혜를 안고 올라옵니다. 또한 홀수 달에는 안양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연 1회 방문하는 안동과 청송교도소 재소자 형제들에게는 매월 보관금(교정 시절에 보관하여 재소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12월 크리스마스에는 교도소마다 불우재소자 3명을 추천받아 별도의 보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주·공주교도소 등 방문 재개… 마음문 열기

재소자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새길회 회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내는 보관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준비해오는 간식이 기다려져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닌가요?" 이러한 저희의 질문에 형제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새길회와의 만남과 예배가 자신들을 많이 성장시켜 주었으며, 출소 이후에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10개월 정도의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회심한 상당수의 형제가 자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9년 3명, 2023년에는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2019년에는 교정·교화 사역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주교도소 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새길회와의 만남을 통해 회심한
상당수의 재소자들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행복해하고 때로는 기쁨에 겨워 울기도 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미소지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새길회 회원들의 눈가에는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맺히곤 합니다. 올해도 기대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처음 참석한 8명의 재소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더 나아가 세례받기를 자원하는 형제가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마지막 땅끝 북녘 재소자 구원위해 간구

새길회는 안양, 청주, 공주교도소를 매년 한 차례씩 순회하며 대집회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 안양 대집회 예배 이후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사역이 재개되면서, 작년에는 공주에서 대집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5월 2일 청주 대집회 예

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풍성한 간식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김운성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빛진 우리 새길회는 높은 담장 안에서 몸과 영혼이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향해, 더 나아가서는 복음통일 이후 마지막 땅끝인 북녘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을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창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새길회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선배 권사님들과 모든 회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새길회 사역에 성도들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만남](#)

새길회 사역 안내

- * 회비수납 : 주일 50주년기념관 1층 로비 오전 8:30~오후 2:40
- * 월례회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벧엘)
- * 방문 사역 : 매월 첫 주 화요일 청주, 공주 / 홀수달 첫 주 월요일 안양 / 연 1회 안동, 청송



진로 고비마다 주신 질문과 기회 내 대답은 언제나 “Yes, 주평주승” <주 안에서 평안, 주 안에서 승리>

지난 4월 21일(주일)에 열렸던 한경직목사기념예배에서 ‘2024 한경직상’을 수상한 송광옥 선교사(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지난 1990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35년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송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교회 목회자이자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오지마을 교회 개척자들의 멘토이자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상담자로 불린다. 매 순간 주님의 질문에 “예!”로 응답했더니 주님의 동역자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송광옥 선교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선교와 교육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면에 담았다.



2024 한경직상 수상 송광옥 선교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름 받은 송광옥입니다. 부족한 종이 올해 ‘한경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남〉의 지면을 통해 영락 가족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1남 3녀 중 3녀로, 바로 위의 언니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성경의 에서와 야곱처럼 말이죠.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고침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린 시절 꿈이었던 여군 하사관으로 입대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기간



송광옥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단과의 동역을 통해 선교사역(오지교회 개척)과 교육사역(신학교, 유치원, 초·중등학교)을 펼치고 있다.

(1977~81년)은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부마사태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리고 5·18에 이르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계엄군의 일원으로 슬픈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부사관 전역 후 주님 강권하심으로 목회자 길 걸어

전역 후 주님의 강권하심과 쌍둥이 언니의 권면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부 2학년 때 교정에서 마주친 주선애 교수님(작고)의 “졸업하고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선교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이 대답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님은 저를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선애, 이광순 두 은사님의 후원과 장학금 혜택으로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부 3학년 가을 학기부터 신대원 2학년(1984~88년)까지 함양, 산청, 거창군 일대 지리산 산간마을 무(無)교회 지역을 돌며 교회 개척과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돈 100달러 2만원 후원 믿고 선교사 도전

1989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

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자원했으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후원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짧은 미혼 에다 당시 예장통합교단은 여성 교역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시행하지 않던 시기라 이런 조건들이 현실적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랑 미화 100달러와 2만 원 후원 약정을 가지고, 총회 세계선교부에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심사 과정 중 “이것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질문에 “이 정도 후원이면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대답했고, 속으로는 ‘남자같이 강권 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외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침묵 행진이 한동안 이어진 후 마침내 파송이 결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파송 35년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마침내 1990년 1월 20일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땅을 처음 밟은 이래 지금까지 3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 까지 겪으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선교적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신학교 시절 지리산 산간 지역을 돌며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미리 훈련시켜 주신 은혜는 선교 현장에서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보는 곳, 발걸음이 닫는 곳마다 인도네시아 오지마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현지 신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다 제 경험을 나누고, 개척의 예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주의 종들이 용기 내어 마을마다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모슬렘 사원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로 나간 후

에 저희 부모 형제 모두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가족 구원을 향한 애통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지로 향했던 저에게 주님께서 가족 구원(사도행전 16:31)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발…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

“주님! 못해요! 안 돼요! 몰라요!”라고 투정만 부리는 인생이 아닌, 순간순간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과 기회에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부족한 여종을 감싸주셨고, 주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지나온 과거의 사역 활동을 돌아보면 저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것이고, 저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사역(현지 SETIA 신학교와 은혜유치원, 초·중등학교 운영), 이외에도 현지 교단과의 동역 사역(GKSI 인도네시아 교회협의회 소속 복음주의 교단 및 GDB 교단)을 통한 오지마을 교회 개척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카르타 근교 한인 열방교회 담임 목회를 통한 현지 교민 전도와 선·후배 교역자들을 위한 힐링 사역, 선교팀 단기선교 훈련 등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평·주·승(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만남**

송광옥 선교사_인도네시아

요시다 목사의 42년 사죄와 화해 영락에서 꽂피운 십자가 사랑



요시다 고조 목사 고별설교 은혜 속 마쳐

1982년부터 42년간 영락교회 일어성경반을 지도해주신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은퇴감사예배가 지난 3월 24일(주일)에 있었다. 은퇴감사예배에는 청·장년 일어성경반 역대 회원들과 지도위원들은 물론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진, 호산나 중창단과 음악부장 장로님 등 100여 분 이상의 성도가 함께했다. 이날 예배는 42년 동안 영락교회와 함께 걸어온 요시다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회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다. 40대 청년으로 한국 땅에 오신 후 42년간 영락교회의 뜰을 밟으신 요시다 목사는 “가해국의 일본인 목사를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영락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되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라고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셨다.

일본의 침략역사 알고 사죄의 목회 반세기

요시다 목사님은 1974년 ‘엑스플로 74’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1천 명의 일본 목회자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낮에는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말씀과 찬양 집회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 뿌리와 고난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을 침



지난 2019년 요시다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죄와 화해'의 캠페인을 펼쳤다.

략하고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한 일본의 잘못을 알게 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고 목사님은 솔직하다. 그 후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여 일본강점기 역사 를 배우고 한국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때마침 이즈음에 서울일본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요청을 받고, 1981년 ‘사죄와 화해의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 을 시작했다.

1982년 일본어성경연구반 조직 활성화 이끌어

한편 80년대 초반 영락교회에서는 일본어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를 침략했던 국가의 언어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점을 들어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 땅에 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성경공부반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성도들이 박인재 장로님(작고)을 중심 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이 부흥되어 1982년부터 요시다 고조 선교사를 지도목사로 모시고 152명까지 모이는 성경공부반으로 성장했다. 일어성경반 창립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이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1세대 회원들은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에 앞장섰다. 교회와 총회에서 지정해주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일본인 선교사를 후원했으며, 직접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 선교 사역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장년 일어성경반이 부흥하는 모습을 본 영락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 일어성경반을 개설했고, 이 모임도 요시다 목사님이 지도를 맡았다.

호산나는 일본 가고, 다마가와 학원 한국방문

1980년대에는 한·일간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터라 일본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 일어성경반도 활성화되어 이 모임을 통해 일본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나왔다. 이처럼 당시 요시다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청년 일어성경반 강의를, 3부 예배 후에는 장년 일어성경반 강의를 진행했다. 담임 목회자인 서울일본인교회 2시 반 예배에 갈 때가 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피곤한 상태가 되기도 했지만, 연약한 성대를 주의 일을 위해 사용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건강함을 허락하셨고, 그 덕분에 30년 이상 사역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고 목사님은 간증한다.

요시다 목사님은 일본에서 손님이 오면 영락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모셔와 본당 외국인 안내석에서 동시통역을 들으며 같이 예배드렸다. 예배 후에는 일본인 방문객들을 한경직목



1

2

사기념관으로 안내하여 영락교회와 한국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며 사죄와 화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했다.

청년, 장년 일어성경반에 일본 방문객이 방문하면 신앙 간증을 통해 교류할 기회를 만들었다. 요시다 목사님은 '스터디 투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일제의 만행을 알려주기 위해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탑골공원, 제암리교회,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역사의 현장을 안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을 기회도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2년마다 여름방학 기간 한일 간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게이와학원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잊을 수 없다. 이 학생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일어성경반 어르신들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을 들으면서, 그런 슬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 일본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은 일본으로 떠나면서 전해준 감사의 메시지에 깨알같이 담겨있다. 안타깝게도 한일관계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이 학교의 공식적인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우리 교회 호산나찬양대의 일본순회 연주와 다마가와 고등학교 학

생들의 영락교회 방문은 지속되고 있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일 간의 사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영락의 둘에서 한일간 교제 면면히 이어져

42년 전 요시다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신앙 선배들의 현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열매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 매일의 말씀(119대작전, 한친구운동, 영락오이코스)을 일본어로 나누고, 제자양육훈련부 지원으로 요시다 목사님 말씀을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단절 없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든든하게 유지했다. 특별히 2024년부터 일어성경반은 요시다 목사님의 사위 하라시마 노조미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1974년 한국 교회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1천 명의 목회자가 한국에 온 지 올해로 50년이 됐다. 50년 전 한국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불길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 위에, 열심으로 모이는 모든 소그룹과 일어성경반 위에 뜨겁게 타오르길 간절히 기도한다. 주여! 이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만남**

이향주 권사_성남·분당교구, 일어성경반



사랑부, 그리고 참 고마운 이름들 …

8살 딸아이 사랑부 사랑으로 함께한 26년

혼자서는 어디에도 다닐 수 없는 어린 7살 아이를 무조건 영락교회 유아부에 1년을 다니게 하고, 8살에는 좀 더 적극적이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락교회에 사랑부가 있습니다"라는 어던 선생님의 권유로 사랑부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사랑부가 막 창립된 26년 전의 일입니다. 참 많은 선생님의 배려와 보호와 가르침 덕에 그 어린아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사랑부에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담임 맡으신 류화정 선생님의 사랑

다행히 율동과 노래와 연극에 달란트가 있어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성탄 예배,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10주년 기념연극, 20주년, 25주년 등등. 그리고 최근 4월 21일 장애인 주일과 사랑부 26주년기념운동회까지, 그 어떤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했던 그 아이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는 딸아이를 문화선교부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2022년까지 담임을 맡아주셨던 류화정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5년간 딸아이의 담임으로

섬겨주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고, 엄마인 제가 선생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늘 반갑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저 좋은 선생님, 류화정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 앞가림 할 수 있게 도와준 허영선 집사님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 올해 32살의 예쁜 아가씨 안혜성으로 자랐습니다. 한 주 한 주 사랑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앙으로 더욱 다져져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는 예쁜 천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예쁜 천사와 함께 사는 엄마는 늘 행복합니다. 카페프렌즈라는 귀한 일터를 만나게 하심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커피 내리는 방법과 손님맞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혼자서 밥을 사 먹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가림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가르치고 마음을 써주신, 같은 사랑부의 자녀를 둔 허영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남편, 장애 있는 딸…삶 고단했죠

지난날 참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픈 남편의 뒷바라지가 더 힘들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날들이었지만, 돌아보니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아기처럼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그저 안쓰럽고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엄마의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끔 요양원에 들르곤 합니다. 그래도 요양원에서 건강히 잘 지내주니 그것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가정도 생활도 축복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들과 딸은 잘 자랐습니다. 아들은 전도사로, 딸은 사랑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제 믿음이 아들과 딸에게도 영향을 주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충무로 대한극장 옆에서 '엘림분식'이라는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경험도 없이 가게를 인수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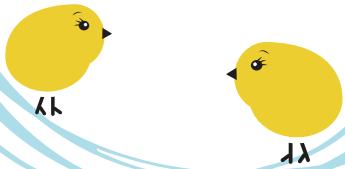
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코로나를 잘 견디게 하셨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손님도 많아져 날마다 바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보다 먼저 가면 어쩌나 이젠 걱정 안 해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먼저 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어떡할까? 늘 염려하고 걱정이 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인해 더는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계획함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6년 동안 사랑부를 통해 딸아 이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신앙교육, 여러 활동으로 사랑부를 섬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민옥 성도 _ 중구·용산교구, 사랑부 안혜성 학생 모

생명 품은 알처럼… 날마다 부활



여느 해 같으면 하얀 목련이 활짝 피었을 교육관 앞, 올해는 하얀 목련 대신 예쁜 닭들이 알을 품고 알록달록 차려낸 부활절 잔칫상이 사랑부 앞을 장식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이나 그 앞을 지나는 찬양대원들을 비롯하여 지나는 사람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물려든다.

알록달록 부활절 잔칫상을 차리다

이 부활절 잔칫상은 누가 차린 걸까?

주인공은 바로 김성애 은퇴권사(사진 71세, 안양·수원교구). 올해로 영락 교회 출석 52년째. 지난 44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29년간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섬겼다.



주일 새벽 3시 기상, 29년간 1부 찬양대 봉사

지난 29년간 주일 1부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봉사, 은퇴하기까지 매주 일 새벽 6시 연습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3시에 기상, 첫 차인 4시 버스를 타고 신길역에 도착해 다시 5시 7분에 출발하는 1호선 전철을 탄다. 서울역에서 환승, 명동에 도착하면 5시 45분이다.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찬양대 연습을 다녔다. 1부 찬양대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44년 간 이어 온 유년부 교사 봉사 때문이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29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새벽 3시면 잠이 깨서 때론 힘들다고 말한다.



44년간 주일학교 교사 결석 한 번도 안 해

작년 2023년 은퇴하기까지 무려 44년간 교사로 봉사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까? 이복이 고향이셨던 부모님을 따라 처음 영락교회를 나온 이후 유년부, 중·고등부를 거쳐 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20대 초반, 우연히 구역 예배에 오셨던 전도사님의 권유에 따라 1년간 교사 교육을 받고 유년부 봉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는 교사 교육이 아주 엄격해 결석 2번, 지각 3번이면 자동 퇴학이었다. 1980년 처음 유년부 봉사를 시작한 이후 30년이 돼 가던 2010년 다시 사랑부 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유는 당시 자리 이동이 없던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다른 부서 봉사를 권했는데, 당시 장애인 관련 봉사를 하고 있던 터라 만약 다음 봉사를 하게 되면 사랑부를 섬기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다시 14년간 사랑부 아이들을 섬겼다.

부활절 닭뜨기 올해 두 번째 전시회

이 모든 건 단 하나 그저 '생명' 때문이었다. 단지 그것 외에 무엇이 또 있을까? 나는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처음부터 죽으려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 순간부터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생각을 일찍이 품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더 귀한 것도 그렇다고 귀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44년간 그리고 29년간 모든 자리에서 품었던 아이들이 그저 생명으로 자라주길 바랐다. 마치 부활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두 분 모두 96세로 소천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손수 돌봤다. 응용미술을 전공한 덕에 손으로 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었다. 카드 만들기, 종이접기, 뜨개질도 처음 그렇게 시작했다. 남다른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인터넷을 보고 더듬더듬 시작한 일이었다. 시간 될 때 조금씩 텔실을 사고 그러다 실용성을 갖춘 수제미실로 뜨기 시작, 제법 작품이 모이자 코로나 시기에 사랑부 안에 전시하다가 작년 부활절 연극 때 밖으로 나온 게 전시 시작이었다. 올해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을 품은 부활절 알을 품은 닭' 뜨기는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품은 '생명', 곧 생명을 품은 부활절 잔치로 이어진 것인지 모른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지든 어느 자리에 가든 오직 하나, 나로 인해 더 '생기' 있게, 나아가 '생명'을 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손으로 뜯다. **만남**

취재 | 인 미 기자

'천국의 젓가락' 더 일찍 배울 걸…

교회를 다니라는 올케언니의 권유를 받고 1980년대초 영락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담임목사님은 박조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남편의 술버릇이 고쳐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예배도 거르지 않으며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술꾼 남편 전도하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지 마음먹고 한 달 두 달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술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2부나 3부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꼭 1부 예배만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예배당에 가니 옆 사람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꾸벅꾸벅 졸기 일쑤이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2부나 3부 예배에 가도 되는데 왜 꼭 1부라

야 했을까요? 남편에게는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배가 목적이라기보다 7시 예배 후 종로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 먹으러 가는 것이 재미였던 겁니다. 해장하고 나면 제 기동에 있는 오라비니 집에 가곤 했습니다. 올케는 제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고 주일 낮에도 가하게 술상을 봐줬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인 올케이기에, 그럴 때면 화가 날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나쁜 술버릇이 없어지기를, 교회만이라도 열심히 다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간을 미워하면 그것도 죄짓는 거라고 회개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제 베릇 못 고친다”라고 말하지요. 아니요, 기도하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자고 말했습니다.

환우들 머리 감기고 식사 도와주며 봉사 눈淚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 권사님들이 그런 저를 응원했습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결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덜 먹고 덜 쓰며 약자를 돋고 살아야지 기도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권사님들을 따라 교회 앞 백병원에서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삼푸 봉사를 열심히 해보니, 남을 위한 봉사는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은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

김용숙 은퇴집사
용인·화성교구



을 통해 배려와 나눔은 저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기다란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서로서로 이웃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예화가 생각납니다. 나보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죽을 뻔한 교통사고로 저를 성장시키신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기적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을 사고가 났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차에 오르는 순간 버스가 훌쩍 떠나는 바람에 저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좁은 틈에 끼여 꼼짝도 못하는데, 저를 못 본 버스 기사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의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고 아우성을 치자 갓길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기사는 거꾸로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걸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촬영한 엑스레이를 본 의사 선생님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나?"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사고면 목과 어깨, 허리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텐데 정말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제 사고소식을 들은 분들은 모두 떨어질 때 천사가 팔 벌려 받아준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하는 게 진짜 행복 깨달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키려고 시험하셨나 봅니다. 저는 또 결심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저금통 여덟 개를 가져와 집의 여기저기에 놓고 동전을 하나둘 넣곤 합니다. 무거워질수록 마음이 즐거워지며 몇 달 지나면 이삼만 원이 모입니다. 연말이면 길거리에서 불우이웃 돋기 모금함에 넣으며 봉사자 분에게 추운데 수고하신다고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는 합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 미련하게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교구 전도사님께 부탁드렸더니 '기아대책 희망친구'라는 기구를 통해 후원 대상자를 추천받았습니다. 탄자니아 12살 소년이랍니다. 예전에 이철신 원로목사님께서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한 아이씩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회의에서 신뢰로! 제64회 산상기도회

제64회 산상기도회가 지난 4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본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신뢰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산상기도회에는 본 교회 제4대 위임목사(1988~1997)로 시무했던 임영수 목사(모새골 설립자)가 강사로 나섰다. 집회 첫날이었던 24일 저녁 7시 개회예배 설교 앞머리에서 본 교회 사임 이후 27년 만에 영락 강단에 선 임 목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소회를 밝히자 본당과 부속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환영의 박수로 반가움을 나타냈고, 많은 장년 성도들은 잠시 추억에 젖는 모습이었다.

임영수 목사는 기도회 기간 중 5차례(24~26일 저녁 예배, 25~26일 오전예배)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우리 시대의 구

도자이자 영성가인 임 목사의 설교는 집회 기간 성도들에게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일상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임영수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상 속 삶의 훈련을 강조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임영수 목사는 24일 개회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히브리서 12:1~13)이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며,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길들어져 갈 것”이라면서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삶의 방식을 적용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는 비결”이라고





전했다.

25일 저녁예배에서는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시편 23:1~6)이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선한 목자이자 인자한 집주인과도 같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인간의 현실 앞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은 성령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 주님과의 긴밀한 내적 공간을 만들어가길 권면했다.

26일 저녁 폐회예배에서 ‘나의 앞날이 주께 있나이다’(시편 31:1~15)이란 말씀을 선포한 임영수 목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전하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창조의 파트너로서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나이 들…삶이 익어가는 시간

25일과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오전예배에서 임영수 목사는 강의 형식을 가미한 설교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나이 들과 성

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다. 25일 오전예배에서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란 설교를 전한 임 목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자유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서 “세상의 범주와 관습에 갇혀 있지 말고 한 차원 높게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26일 오전 임영수 목사는 ‘나이 들과 익어감’(시편 92:12~15)이란 설교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생을 익어 가게 할 것인가?’라는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영적 지혜를 제시했다. 임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인생의 사계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이며, 생의 계절을 어떻게 바르게 향유해 갈지를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가올 미래를 쇠하고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노년 이전의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권면함으로써 중장년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산상기도회 기간에는 성경통독과 어린이 산상기도회도 함께 열려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주었다. 25일과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성경통독을 통해 성도들은 말씀에 담긴 의미와 은혜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다.



25일에는 탁현수 목사가 인도자로 나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통독을 진행했고, 26일에는 황재영 목사가 인도자로 나서 사사기, 롯기 통독을 진행했다. 성도들은 3명의 전도사가 성경 통독사가 되어 한 장씩 교대로 읽어나갈 때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말씀의 참 의미를 깊이 음미했다.

저녁예배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 50주년기념관 2층에서 열린 어린이 산상기도회는 영락의 다음세대가 함께 한 또 하나의 말씀 칸치였다.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어린이’(시편 23:1)란 주제로 열린 어린이 산상기도회는 어린이 집회와 공동체 활동, 조별 미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부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 젊은 부모들에게는 잠시 육아의 부담을 접어두고 산상기도회 집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름에서 4월로 개최 시기를 옮긴 후 두 번째로 맞이한 이번 산상기도회는 성도들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준 시간이기도 했다. 성도들은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구역과 부서, 소그룹 식구들에게 산상기도회 참석을 독려했다. 마지막 날인 26일 점심 식사로 제공된 평양냉면은 산상기도회가 준 즐거움 가운데 단연 백미(白眉)였다. 수유리 기도원 시절의 전통과 풍미를 살려 맛을 낸 냉면은 성도들의 큰 환영을 받았고 순식간에 동이 나 이번에도 영락 성도들의 ‘소울 푸드’임을 입증했다.

목양부 집계결과 이번 산상기도회 기간 중 7번의 집회(25, 26일 새벽기도회 포함)와 어린이 산상기도회에 온·오프라인을 합쳐 연인원 42,193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목양부는 예전 산상기도회의 전통과 추억을 되살리며 기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6월 28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특별금요산상기도회를 3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만남**

하나님의 ‘력사’하심으로

복음통일은 기필코 이뤄지리라

내겐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화를 내며 내 앞에서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 일어나라!…맨 먼저 일어난 아버지

한 고위급 간부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쟁이들 일어서라!”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70여 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3~4명이 더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군인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은 끔찍한 고문과 구타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 정용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탈북민 형제 중 대다수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고, 현재 남한에서 목회자가 되어 북한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정하민 전도사
북한선교부

순교 택한 열렬한 주체사상 신봉자

저의 아버지는 열렬한 주체사상 신봉자이셨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총폭탄이 되리라고 외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아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품고 1997년,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북한 출신 북한선교사로 세워지셨습니다. 중국 연변의 한 시골길에서

아버지를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중국 대지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안 지역에 있던 탈북민 성경통독 사역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여 명의 탈북 형제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및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한국 선교사님 댁에서 선교사님의 4자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의 눈앞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당하여 북한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중국 도문 변방수용소를 거쳐서 북송당하셨습니다. 온성군 보위부 마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책임져주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책임져주지 않은 하나님과 담쌓아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싫었

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헛수고였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편 139:8~10)”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꿈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2015년 어느 봄날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래바람이 세차게 부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거대한 손의 형체가 나타나서 저의 등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순간 모래바람 층이 걷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갯짓하며 떠 있고, 초원에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민아, 아빠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려운 언어를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듯,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이미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세상에서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저의 사상과 인격과 삶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하나님은 저를 성경 말씀인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맥이 그어졌습니다. 태어나서 그 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아내와 당시 생후 7개월 된 아이와 가정과 저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고, 2017년도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했

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나의 능력만큼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따라 민족복음화 소명 받아

아버지께서 2000년 4월 15일에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남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력사하심으로 복음통일은 기필코 이루어지지라”라는 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복음통일과 민족복음화의 사명 길로 가게 하십니다.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것이 북한선교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북한선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야만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복음통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선교는 하나님 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만날**

아프면 아스피린?

알고 먹어야 ‘약’



지금부터 20~30년 전까지 특정 질환에 많이 사용되던 약물이 본래의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대표적인 약물이 ‘아스피린’이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기원과 작용, 용도와 용법, 기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기의 명약…BC 1500년 파피루스에도 기록

아스피린은 아세틸 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ASA)이라고도 하며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서 유래되었다. 살리실산은 베드나무 껍질에 함유되어 있으며 기원전(BC) 1,500년쯤의 파피루스에서도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랜 시간 사용되어왔다. 근대에 베드나무 껍질 추출물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하여 해열, 진통제로 사용했으나 부작용(구역질, 소화기관 손상)이 심각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는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감소시킨 아스피린을 합성했다. 아스피린은 1899년 해열 진통제로 특히가 등록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해열 진통 항염…혈전 생성 억제 효과도



김영표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의료선교부 약무팀

아스피린은 발열, 통증,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дин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해열, 진통, 항염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전의 생성도 억제한다.

아스피린은 이 때문에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아스피린(아스피린프로텍트정, 아스트리스캡슐 등)은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도달한 후 녹아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제제로 되어 있어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심장질환 가족력 있다면, 복용 전 전문의와 상의해야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 복합적인 인자가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크다. 그러나 출혈 등의 부작용도 있으므로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려면 먼저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함량 따라 효능 효과 차이…용법 달라야

아스피린은 함량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

- ▶ 500mg 정제는 해열, 진통, 소염작용이 있어 관절염 등 퇴행성 관절질환이나 감기로 인한 해열, 두통, 근육통 등에 사용한다. 1회 0.5~1.5g, 1일 2~3회 복용한다.
- ▶ 100mg(또는 81mg, 75mg)인 정제, 캡슐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에 사용한다. 또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자에게 심혈관계 위험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 고용량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14세 이하, 임신 3기라면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 ▶ 소화성 궤양 환자, 다른 혈전용해제 복용 환자,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임신 3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복용을 금해야 한다.
 - ▶ 레이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14세 이하의 소아에게, 특히 인플루엔자나 수두로 인한 발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레이증후군: 소아에 있어 매우 드물게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에 뒤이어 심한 구토, 의식장애, 경련 (급성뇌부종), 간 이외의 장기에 지방 침착, 고암모니아혈증, 저프로트롬빈혈증, 저혈당 등 단기간에 발현하는 증세로 사망률이 높음.

약국 현장에서 아스피린을 오용하여 또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있다.

(사례)

아스피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100mg 이하의 저용량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mg 고용량 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함으로 소화성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다.

약의 선택과 복용에 있어서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사용하여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기를 기원한다. **만남**

‘너는 내 아들’ 상영 이끄신 하나님



영화 ‘너는 내 아들’ 베다니홀 상영을 마치고

문화선교부에서 봉사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선교부 기획팀 디자이너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직업이 편집디자이너다 보니 디자인팀에서 봉사할 생각이 없냐는 지인의 권유로 들어왔는데, 함께 봉사했던 이들은 떠나고 지금은 소수의 인원만 남은 채 기획팀은 영화팀으로 이름이 바뀌어 남았네요.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땐 기획팀에만 20여 명이 봉사했던 터라 북적거리며 기획 회의도 많이 하곤 했지요. 다시 그때처럼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영화선정, 검증, 예산, 상영시기 등 철저한 준비

현재 영화팀은 주일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성도들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를 선정, 베다니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토) 상영했던 데이빗 헬링 감독의 ‘너는 내 아들’은 올해 상반기 영화로 선정한 영화입니다. 작년 6월 개봉했던 이 영화는 11월에 재상영을 시작해서, 지금도 신촌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전도부를 섬기던 지인 권사님의 추천으로 처음 관람하게 된 이 영화의 원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베다니홀에서 상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문화선교부를 담당하는 황재영 목사님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자문한 후 영화팀 식구들에게 상반기에 상영할 영화로 추천했더니 진행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영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을지 의논하다가 부활절쯤에 상영하면 좋을 것 같아 부활절 직후 첫 주말이었던 4월 6일에 진행하게 되었죠. 5년 만에 베다니홀에서 상영하게 되어 사전 홍보부터 상영 당일 진행 상황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문화선교부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을 마쳤습니다.

성도들께 감동 선사할 하반기 영화도 기대

집중해서 보시는 성도들의 모습과 영화의 끝 무렵에 많은 분이 눈물을 닦으며 보시는 모습에 저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가시는 얼굴에 기쁨과 은혜의 감사가 느껴져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어떤 영화로 저희를 이끄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함께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화선교부 영화팀으로 찾아오세요. 주일 오후 1시부터 상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남](#)

문의 : 문화선교부 영화팀

영락시어터 5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5일

진짜 나를 만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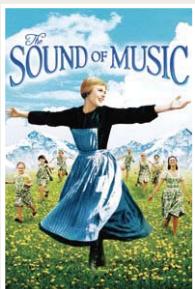


인사이드아웃 (Inside Out, 2015) ALL 95분

감독: 피트 닥터

출연: 케이틀린 디아스, 에이미 포엘러, 필리스 스미스,
민디 캘링, 빌 헤이더, 루이스 블랙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그곳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 본부를 이탈하게 되자 라일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라일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본부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엄청난 기억들이 저장된 머릿속 세계에서 본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1969) ALL 17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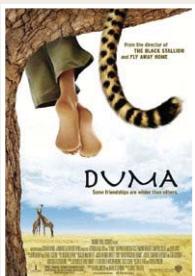
감독: 로버트 와이즈

내레이션: 줄리 앤드류스, 크리스토퍼 플리머, 엘레노 파커, 리처드 헤이든

알프스에서 들려오는 환상의 하모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합창이 시작된다.

다함께 도~레~미~♪♪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뮤지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수녀원에서 교육받은 가정 교사가 폰 트랩 가족의 마음을 얻고 용기를 불어넣어 1938년, 알프스를 넘어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듀마 (Duma, 2005) ALL 100분

26일

감독: 캐롤 발라드

출연: 알렉스 마이클토스, 이몬 워커, 캠벨 스콧, 흡 데이비스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잭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새끼 치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다. 새끼 치타에게 아프리카어로 치타라는 뜻을 가진 '듀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혼자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르기로 하는데, 세월이 훌러 드디어 듀마는 야생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 아버지와 잭은 듀마를 처음 발견한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여행을 계획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마는 잭과 듀마를 데리고 도시로 이사가려는데…

그 사랑에 빛진 자가 됩시다! 2024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열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한경직 목사(1902~2000) 24주기를 맞아 '2024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운성 목사) 주관으로 지난 4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열렸다. '그 사랑에 빛진 자'(요한복음 3:16)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추도예배(사진 19일), 기념주간 전시회(19~27일), 기념예배 및 한경직상 시상식(21일)이 열렸다. 19일(금) 오후 2시 영락공원묘원에서 열린 추도예배는 최승도 목사의 인도, 박광준 은퇴 장로의 기도,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성 목사는 '무엇을 볼 것인가'(신명기 34: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경직 목사님은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만 바라보시며,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라고 전했다.

21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열린 기념예배에서는 오랜 기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연구목사로 시무했던 김은섭 목사(대



덕한빛교회)가 '놀라운 은혜'(시편 116:1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함께 열린 '2024 한경직상' 시상식에서는 송광옥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가 한경직상을 수상했다(관련기사 34쪽). 행사 기간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는 '한경직 목사와 템플턴상'을 주제로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전시회가 열렸다.

양산중앙교회 찬양대, 본 교회 방문

음악부



경남 양산중앙교회(정지훈 목사 시무) 할렐루야찬양대가 지난 4월 21일(주일), 본 교회 5부 예배를 방문하여 베들레헴찬양대와 연합찬양을 드렸다. 양산중앙교회 찬양대의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들레헴찬양대의 양산중앙교회 방문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베들레헴·할렐루야 연합찬양대는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작사 : 한경직 목사, 작곡 : 박영근 장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렸다.

탈북민 전도를 위한 교회의 역할…2024 영락포럼

북한선교부

북한선교부(부장 공수일 장로)가 주관하는 2024 영락포럼이 지난 4월 16일(화) 저녁 7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탈북민 전도를 위한 하나교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북한선교 및 탈북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의 연합모임인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이하 통사연)과

의 공동 세미나 형식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훈 목사(안성 하나님원 하나교회)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중 대부분이 정착과정에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 출석을 했던 귀한 성도들이었다"라면 서 "지금은 그 중 상당수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슬픈 현실 앞에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은 소그룹토의를 통하여 통일선교에 관한 사명과 비전을 공유했다. 소그룹토의를 마친 후 공수일 북한선교부장과 탁군진 통사연 회장(지구총교회 장로)은 탈북민 사역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북한선교를 위한 회개와 비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민 있으세요?" 상담부 홍보주일

상담부

상담부(부장 차영균 장로)는 지난 4월 7일(주일) 홍보주일 행사를 열고 평소 상담부를 찾기 어려웠던 성도들을 위한 대면상담과 함께 상담부의 가정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베다니광장에 설치된 홍보 부스에서는 신양상담과 가정상담을 비롯하여 법률, 세무, 금융, 노인케어, 정신건강 등의 전문상담을 진행했고, 상담부가 1년 동안 진행하는 가

정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신청을 받았다. 현재 상담부는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에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3교대로 전화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은 사전



접수자에 한해 주일에 대면상담으로 성도들을 돋고 있다.

전화상담 문의 : 02)2275-1004, 1007

전문상담 예약 : 02)2280-0171

강원지역 5개 동반성장교회 방문…기도 제목 청취

여전도회

제1여전도회(회장 장은희 권사)는 지난 4월 4일(목) 예장 총회 강원동노회(강릉, 양양, 속초, 고성지역) 소속 교회 중 현재 제1여전도회가 지원하는 5개 교회(기쁨의교회, 서면교회, 철산교회, 새문교회, 영화교회)를 방문했다. 선교부 교역자와 임원진, 제1여전도회 임원과 실행위원이 동행한 이번 방문은 현지 교회 목회자들의 설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강원지역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실제 직면한 여러 상황과 기도 제목 청취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1여전도회와 현지 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선교 사역의 협력 방향을 공유하며, 농어촌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미자립교회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최전방 부대 방문 연합그림 사역…올해에만 10회 계획

선교부 문화선교

선교부 문화선교 산하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위영혜 권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 육군 1사단(전진부대)을 방문, 연합그림 사역을 펼쳤다. 두 차례(1차 : 3/8일, 2차 : 4/12일)에 걸친 이번 방문을 통해 미술인선교회 회원들과 장병들은 각자가 2호 캔버스에

아크릴 작업 후 함께 32조각 또는 36조각의 큰 작품으로 제작했고, 완성된 연합그림의 액자와 명패도 함께 제작하여 부대에 전달했다. 장병들에게 예술문화로 다가가 그들의 정서적 회복을 돋고,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 중인 미술인선교회의 연합그림 사역은 작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에도 총 10회에 걸쳐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술인선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회원을 총 4팀(은유, 희락, 화평, 충성)으로 나눠 문화선교 임원진과 함께 봉사하고 있으며, 향후 군부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등 연합그림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먼저 찾아가는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소명과 취업 멘토링…비전박람회

청년부

기독 청년을 위한 비전박람회가 지난 4월 29일(토) 오전 11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과 지하 1층 휴게공간에서 열렸다. 청년부(부장 김주현 장로)가 제자양육훈련부(부장 김병욱 장로)와 협업하여 주최한 이번 행사는 취업 및 이직을 계획 중인 젊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민경중 교수(전 CBS 보도국장), 유현준 교수(건축가)가 강사로 나섰고, 본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전문 영역별 멘토들도 함께 참여했다. 멘토와 멘티(참여 청년)들은 영역별로 구성된 30여 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실제적인 일대일 상담과 조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냉수 한그릇'의 작은 정성…어깨동무 후원자 모집합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이 지난 4월 28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어린이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가 후원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가득 채운 저금통을 맡기고 가는 성도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5시 본당에서 열린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에서는 김충섭 목사가 '준비되리라' (창세기 22:13~14)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재단 이사장 박홍준 장로가 사회복지시설을 소개하며 "한경직 목사님의 이웃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을 통해



주님이 항상 관심 가지시는 소외된 계층을 잊지 말고 모두가 냉수 한 그릇의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면 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역자
동정



박찬양 전도사, 목사 안수

박찬양 전도사(영락수련원)가 지난 4월 25일(목) 약수교회에서 열린 서울노회 제206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Family group

1949, 헨리 무어(Henry Moore)

가족은 한 핏줄, 사랑의 공동체

'영국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헨리 무어(1898~1986)가 제작한 이 조각상은 '가족은 한 핏줄이며 사랑의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이 조각상은 모나거나 거친 부분 없이 인체의 부드러운 곡선을 그대로 담아 정겹고 포근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눈코입과 몸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처리해 생명의 에너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세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오른손은 엄마의 왼쪽 어깨에 다정하게 얹혀 있고 왼손은 아이의 다리를 살며시 붙들고 있으며, 엄마는 두 팔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무어는 "엄마와 아빠의 팔이 아이의 몸에 세 개의 매듭을 짓는 모양새가 된다. 세 개의 매듭은 가족 간 단결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정답게 벤치에 앉아 있는 이 조각상을 보고 있으면,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5월호 통권 603호

발행 2024. 05.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님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종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2024년

영락가족운동회



- 일 시 : 2024년 5월 18일(토) 9시~16시
- 장 소 : 대광고등학교
- 주 친 : 선교부
- 주 관 : 제1·2·3·4남선교회
- 후 원 : 제1·2·3·4여전도회, 의료선교부, 안수집사회,
권사회, 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Family Group 1949, 헨리 무어(Henry Moore)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